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오늘 오전에 에너지 세미나가 있었습니다. ,

[미국 경제]
- Bloomberg: 미 3분기 노동생산성 1년 만에 최고치
- Bloomberg: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"물가 잡으려면 긴축 금리 필요"

[미국 금융]
- WSJ: 데이터센터 우려로 반도체주 매도세 커진다

[미 중간 선거 여파]
- CNBC: 미 민주당 승리가 미 경제에 미칠 영향

[오일]
- WSJ: 유가 소폭 반등 불구 1백 불 아래로

[KMI 공급망 브리핑]

[오늘의 금융 지표]
- 미 증시 지수,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

[미국 경제]

Bloomberg: US Labor Productivity Increases at Fastest Pace in a Year
미 3분기 노동생산성 1년 만에 최고치

- 미 기업들의 기술·설비 투자 효과로 3분기 노동생산성이 1년 만에 가장 빠르게 개선됐다.
- 연방 노동부가 오늘 목요일 발표한 3분기 비농업 노동생산성은 3.7% 증가했다. 근로 시간은 0.1% 늘어난 반면 생산량은 3.7% 늘어 기술·장비 투자가 효율성인 향상을 보여줬다.

- 생산성 개선으로 단위 노동비용은 0.7% 감소하며 2025년 2분기 이후 첫 하락세를 나타냈다. 시간당 임금 상승(2.9%) 부담을 생산성 향상이 상쇄했기 때문이다. 이는 인플레 없는 성장을 보여주는 지표로, 연준의 통화정책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.

기사

Bloomberg: Fed’s Hammack Says Restrictive Rates Needed to Cool Prices
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"물가 잡으려면 긴축 금리 필요"

- Beth Hammack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인플레를 연준 목표치인 2%로 제때 되돌리려면 통화정책을 긴축적인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
- 그는 금리 정책이 뒤처지는 위험을 줄이고 인플레 심리가 굳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, 소폭의 금리 조정을 더 자주 실시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밝혔다.
- 이 같은 점진적·지속적 대응이 적시 정책 운용에 유리하다는 설명이다.

기사

[미국 금융]

WSJ: Chip Stocks’ Post-Election Selloff is Intensifying
데이터센터 우려로 반도체주 매도세 커진다

- 미 중간 선거 이후 반도체 종목의 후폭풍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.
- 미 의회를 다수당으로 차지한 민주당이 데이터센터 확장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, 월가는 엔비디아, 마이크론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의 주식을 대량 매도하고 있다.
- 미 정부가 최대 주주인 미국 반도체 Intel은 최근 한 달 동안 주가가 50% 이상 급락했다. 같은 기간 23% 하락한 엔비디아 역시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며 올해 연간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.

기사

[미 중간 선거]

CNBC: Here’s what the Democratic election rout could mean for the U.S. economy
미 민주당 승리가 미 경제에 미칠 영향

- 민주당의 이번 중간선거 승리는 정치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미 경제 체질 자체를 크게 바꾸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.
- 무역 정책 재조정과 지출 축소의 철회 가능성이 커졌으나, 고물가 압력, 막대한 재정 적자, AI 중심 성장 구조 등 핵심 위험 요인은 그대로 유지된다.
-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권한이 남아 있어 기존 정책 기조는 상당 부분 이어질 전망이다.
- Mark Zandi 무디스 애널리틱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, 고용 둔화, 지정학적 리스크를 지적하며 "경제 취약성이 지속되고 있어 경기후퇴 위험을 배제하기 어렵다"고 진단했다.

기사

[오일]

WSJ: Oil Prices Rise but Stay Below $100 as Traders Weigh Iran Diplomacy, Supply Outlook
유가 소폭 반등 불구 1백 불 아래로

- 유가 급락 후 소폭 반등했으나 여전히 배럴당 $100 아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.
- 유럽 거래에서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1.3% 상승한 배럴당 $95.85를 기록하고 있다.
- 앞서 미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 주도권을 확보함에 따라 이란과의 외교적 해결 기대감이 아주 커졌으며, 이에 따라 수요일 양대 유가 벤치마크 모두 8% 이상 급락세를 보인 바 있다.
- J.P. 모건은 중동 지역의 석유 수출이 일일 2천70만 배럴 수준까지 회복됨에 따라 10월 기준 세계 석유 시장의 공급 과잉 규모가 일일 140만 배럴까지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다.

[KMI 공급망 브리핑]

-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유조선 피격 및 이란 혁명수비대의 기뢰 공격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, 미국이 이란을 대상으로 공습을 단행하며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.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터키 의회가 사우디·파키스탄과의 방위 협정 비준을 추진하는 등 중동 정세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이다.
- 다만 미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함에 따라 전쟁 확대 제동 가능성과 함께 미-이란 간 간접협상 진전 보도가 나오고 있다. 한편 해상 운임 시장에서는 BDI 지수 흐름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, LX인터내셔널이 석탄 및 해상운임 호조로 3분기 영업이익 급증을 기록했으나 국제 LNG 가격 상승으로 국내 에너지 도입 비용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.

[오늘의 금융 지표: 미 증시 지수, 미 국채, 주요 환율]



US 30	53,021.30	+1,235.2	+2.39%
US 500	7,665.20	+96.2	+1.27%
US Tech 100	28,383.90	+203.6	+0.72%
Dow Jones	53,008.63	+1,221.91	+2.36%
S&P 500	7,664.80	+95.84	+1.27%
S&P 500 VIX	18.22	-2.61	-12.53%
Dollar Index	101.443	-0.283	-0.28%

U.S. Treasurys

	COUPON (%)	PRICE CHG	YIELD (%)	YIELD CHG
30-Year Bond	5.125	26/32	5.305	-0.029
10-Year Note	4.625	4/32	4.918	-0.056
7-Year Note	4.875	3/32	4.800	-0.048
5-Year Note	4.75	24/32	4.713	-0.050
3-Year Note	4.875	1/32	4.659	-0.048
2-Year Note	4.625	22/32	4.602	-0.037
1-Year Bill	0	-1/32	4.395	-0.011
6-Month Bill	0	0/32	4.293	-0.005
3-Month Bill	0	0/32	4.133	0.000
1-Month Bill	0	0/32	3.930	-0.010

미국 USD	유럽 EUR	일본 JPY	중국 CNY	유로/달러	달러인덱스
1,343.50	1,507.47	847.79	201.30	1.1189	101.58
-2.50 (0.19%)	+1.30 (0.09%)	-0.32 (0.04%)	-0.49 (0.24%)	0.0000 (0.00%)	-0.29 (0.28%)
11. 5. 01:28 실시간	11. 5. 01:28 실시간	11. 5. 01:28 실시간	11. 5. 01:28 실시간	11. 3.	11. 4. 11:20 10분 지연

환전고시환율 | 국제시장환율

미국 USD

1
1 달러

대한민국 KRW

1,343.50
1,343.50 원

Unsubscribe | Constant Contact Data Notice